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 1 보)

—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

이 혜 숙 · 김 재 숙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Visual Image Perception of Clothing Colors, Color Combinations of Korean Traditional Dress for Woman(Part I)

Hae-sook Lee · Jae-soo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8. 3. 2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1) to evaluate the visual image of colored Korean traditional dress for woman 2) to analyze the colors and, color combinations effect on the image perception using gestalt theory.

The research method was a quasi-experimental with a between subjects desig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e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a response scale. The stimuli was consisted of 17 drawings of females wearing Korean tradinational dress, by using CAD simulation. A response scale consisted of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The subjects were 1138 undergraduate students of Taejon city, Chungnam province and Chungbuk province. Their responses to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test.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image of the stimulus was consisted of the 4 different dimensions.(sociability, evaluation, visibility, attractiveness)

2) Clothing col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mage perception of the evaluation dimension, visibility dimension and attractiveness dimension in the mono-color set. The blue showed the most positive image on the evaluation dimension, and the yellow and the gray showed negative image on the same dimension. The yellow showed the most salient image and the gray showed the least salient image on the visibility dimension. The red showed the most attractive image and the green showed the least attractive image on the attractiveness dimension.

3) In bi-color set stimulus, the perceived image was influenced by color combinations. The yellow blouse-the red skirt set showed the most sociable image on the sociability dimension.

The blue blouse-the green skirt set showed the most positive image on the evaluation dimension. The yellow blouse-the red skirt set showed the most salient image and the blue blouse-the green skirt set showed the least salient image on the visibility dimension. And the red blouse-the yellow skirt set showed the most attractive image on the attractiveness dimension.

On conclusion the visual image of Korean traditional dress wearer was affected by dress colors and color combinations.

Key words: image perception, clothing colors, color combinations, gestalt theory, Korean traditional dress; 이미지 지각, 복식색, 색조합, 형태주의 이론, 한복

I.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물체는 형태와 색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느껴지고 지각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환경과 그들이 입은 의복을 통하여 색을 접하고 느끼게 되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색과 배색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복식에서의 색은 가장 먼저 지각되는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복식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복식색은 최우선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착용자에게 미치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강해원, 1995) 복식의 선택이나 착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형성은 복식색 뿐 아니라 의복, 의복착용자, 지각자, 상황변인 등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색자체만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선행연구들에서도 복식색을 변인으로 하고는 있으나 색을 주 변인으로 한 것이나 배색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복식색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식색이 시각적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모든 색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복식색을 상하조합한 이미지와 상하동색 이미지와의 지각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하동색을 물론 상하배색의 색조합도 선호되는 의복형태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복은 서양의복에 비하여 상하배색이 자유롭고 풍부하므로 한복을 중심으로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한복을 통한 색이미지의 연구는 색에 따른

한복이미지를 정립하여 착용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형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복식색과 색조합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 제 1보에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을 통해 각 색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둘째, 이미지가 다른 두 색이 조합되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형태주의 이론

형태주의(gestalt)이론은 Wertheimer(1916)에 의해 시작된 형태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형태지각은 분리되고 고립된 부분으로 보다는 전체의 구조 또는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는 전체는 조각들의 합보다는 다름 뿐 아니라 부분들을 전체 속으로 조직화하여 구조적으로 결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Matlin 등(1992)은 지각과정이 기본적인 단위수준에서 시작되거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지각이 더 많이 인지되므로써 형태지각에 대한 기본 메카니즘은 전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물의 시각적인 특징은 형태를 주로 하여 지각되거나 색이나 질감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색은 선, 형태, 형상뿐 아니라 주위의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각자가 외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물체의 윤곽으로부터 어떤 형태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색지각은 일반적인 지각과정과 같이 심리적인 구조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정보화과정을 거치며(임승빈, 1986), 각각의 분리된 감각의 축적으로 대

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한다는 형태주의 이론을 따르게 된다(Hesselgren, 1987).

따라서 복식을 통해 색이 정보로 제공된다면, 지각자는 지각정보인 색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고 그 복식을 착용한 착용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지각자는 각각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를 다르게 지각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닌 두 색이 조합되었을 때는 각각의 단색이미지와는 또 다른 이미지로 지각될 것이며, 조합된 색은 전체로 조직화되어 지각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색이미지

색은 생리학적으로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된 광선(빛)이 간상체(rods)와 원추체(cones)로 구성된 시각수용기로 들어와 시신경을 통하여 뇌에 이를 때 비로소 지각될(Goldstein, 1989) 뿐만 아니라 뇌를 거치는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심리적인 면이 있다(이은영, 1993). 또한 색의 상징성 및 색에 관련된 연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낸다(강혜원, 1995). 색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노랑은 젊음, 빛의 상징이고 쾌활한 색이나 경박하거나 냉담해 보일 수도 있다. 빨강은 태양, 불, 피를 연상케 하며, 생명, 활동, 건강, 정열의 상징이다. 빨강은 선명할수록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특질이 있다. 파랑은 하늘, 바다, 청춘, 청년을 연상케 하며, 희망의 상징으로 심리학적으로 안정효과가 있어 전통적으로 조화, 평온, 휴식을 연상시킨다. 또한 파랑은 오늘날 서양의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의복색이다(오희선등, 1994).

녹색은 잔디, 나무, 자라는 모든 것이 연상되고 풍요와 성장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 거의 자극을 주지 않는 색이다. 회색은 안개, 아지랑이, 연기, 땅거미 등이 연상된다. 그리고 모든 색의 의미를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전신을 회색으로 착용한 사람은 정숙하고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기도 한다(Palca, 1992).

한편, 한복에 나타난 고유한 색현상은 '백의의 애호' 현상과 자연의 현상에서 보이는 대비색조화, 미묘하고 섬세한 유사색조화, 절제된 무채색조화 등이 있다(최세완등, 1993). 금기숙(1992)은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

적 디자인에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복의 색은 백색을 중심으로 한 페일(pale)군과 밝은 원색군, 어두운 다크(dark) 계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색조화의 특징은 맑고 밝은 색상들과 맑고 짙은 색상들의 심한 명도차이에 의한 명도대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복의 색은 백색이 중심이었으나 원색의 사용과 배색을 통한 색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배색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복을 통한 연구가 매우 유용하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색이미지의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Kobayashi(1981)는 색이미지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에서 색의 삼속성을 단순화하여 색과 톤(tone)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한 이미지 측정에서 색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색이미지는 평가적(evaluative), 감각적(sensitive), 정서적(emotional), 역동적(dynamic), 척도(scale)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혜숙 등(1996)은 의복디자인 요소(색, 무늬)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질적연구에서 피험자들이 표현한 색은 노랑, 빨강, 녹색, 파랑, 검정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색이미지는 심미적, 심리적, 역동적, 온냉감, 색의 속성과 관련된 요인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박혜란(1988)은 한국인의 승용차 색채기호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승용차색의 이미지는 평가성 요인, 잠재성 요인, 활동성 요인의 세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색에 따라 요인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3. 복식과 인상형성

색은 의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각적 디자인의 요소로서 의복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심리·생리적으로 작용하여(박은주, 1989) 색이 가진 특수한 이미지에 의해 착용자의 이미지가 지각된다. 복식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현 등(1995)은 의복유형, 하의길이, 칼라유형, 의복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수트의 색은 능력-활동성, 주의집중성, 깔끔함 차원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의상디자인 요소들(의복형태, 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드레스의 색은 주의집중성, 평가-매력, 깔끔함 차원에서, 바지의 색은 품위,

주의집중성, 평가매력 차원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남자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항미, 1995)에서, 의복색은 평가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평가적 차원에서 감색의 복이 적벽돌색 의복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형태와 색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대한 연구(차미승, 1992)에서 의복의 색은 성숙성과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형태보다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모든 의복형태에서 파랑(blue), 자주(purple)와의 조합은 성숙한 이미지로, 노랑(yellow)과의 조합은 어려보이는 것으로, 빨강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H-line에서의 녹색은 비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혜원 등(1991)은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 보색조화(연두/꽃분홍)가 유사색 조화(연두/초록)보다 현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고 하였다. 이정옥 등(1995)은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에서, 의복색 변화에 따라 동일 디자인의 의복이라도 의복이 갖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하였다. 한편, 한복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김재숙(1991)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을 호오, 평가, 화친, 개화, 가정관리 차원으로 지각하였다. 강혜원 등(1990)의 연구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평가, 역능, 품위, 동조성, 친화, 화려함-검소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색이미지는 평가적, 활동적, 색의 속성과 관련된 요인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시각적 형태에 따라 이미지의 지각차이가 있었다. 인상형성에 있어서 색은 의복형태에 관계없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주며, 인상차원에 따라서는 다른 변인보다도 색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사용된 색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었고 다른 변인들과 복합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배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단색, 배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한복에서의 색은 한복선택과 구매에서 결정적인 요인(김소영, 1989; 최영미, 1989)이면서도 한복색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색인 빨강, 노랑, 녹색, 남색, 회색이 복식에서 갖는 이미지 뿐 아니라 이 색들이 상하조합되어 배색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한복을 통

하여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4.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복식색과 색조합의 한복이미지 차원을 밝힌다.

가설 2: 각 복식색(노랑, 빨강, 녹색, 남색, 회색의 상하동색), 색조합(노랑, 빨강, 녹색, 남색의 상하배색)은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상하동색과 상하배색간에는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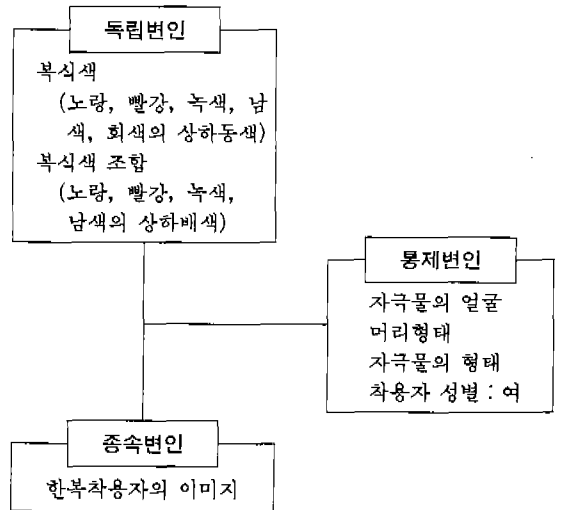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준 실험연구 방법으로 복식색, 색조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은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자극물, 의미미분 척도와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었다.



[그림 1] 연구의 변인

1) 독립변인의 조작(자극물 제작)

① 한복스타일과 색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한복스타일은 의류학과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준거집단과의 토론을 거쳐 전통한복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재에도 많이 입혀지고 있다고 판단된 것을 선정하였다. 색선정은 문헌(Abramov, 1985)과 선행연구(진윤희, 1990; 이혜숙, 1996)을 토대로 하여 기본색으로 제시된 노랑, 빨강, 녹색, 남색에 회색(무채색)을 선정하였다.

② 자극물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스타일화로 제작된 한복 착용자를 CAD simulation-vision printing system을 사용하여 선정된 색을 입히고 이를 프린트하여 사용하였다. 색의 타당성은 준거집단에서 프린트된 자극물을 보고 연구에 적절하다고 평가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색은 <표 1>과 같으며, 색표기는 먼셀의 색표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물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상하동색(노랑, 빨강, 녹색, 남색,

회색) 5개, 상하배색(노랑, 빨강, 녹색, 남색의 상하조합) 12개의 총 17개로 구성되었다.

2) 종속변인의 설정(의미미분 척도 제작)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선행연구(Kobayashi, 1981; 홍병숙, 1988; 강혜원 1990, 1991; 김재숙, 1990; 이혜숙, 1996)를 통해 추출한 형용사쌍 총 64문항을 예비조사를 거쳐 의미있게 나타난 것과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응답토록 하여 얻어진 형용사쌍을 합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한 의미미분 척도는 리카트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 총 1138명(남 560명, 여 5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피험자간 설계(between subject)로 한 피험자가 한 자극물을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11월 28일~1997년 1월 10일, 1997년 3월 3일~1997년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196부를 배부 회수하여 통계에 적절치 못한 58부를 제외한 1138부를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AS PC+통계방법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검증을 위한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 이미지 차원의 도출을 위한 요인분석, 도출된 이미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t-test를 행하였다.

<표 1> 선정된 색

한복색	노랑 2.5Y 8/12 빨강 5R 4/14 녹색 5G 5/10 남색 7.5PB 3/12 회색 N 4.75
입술색	7.5R 5/16
얼굴, 손	7.5PR 8/6
머리색	N 2.25



[그림 2] 한복착용자의 자극물

IV. 결과 및 논의

1. 복식색,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

1)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관한 요인 도출

가설 1의 한복착용자에 대한 이미지 차원의 구조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의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17개의 자극물을 32개의 형용사쌍 단어의 의미미분 척도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자극물의 이미지는 <표 2>

<표 2>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 1: 사회성		요인 2: 평가성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0.75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0.82
점잖은-점잖지 못한	0.74	의욕적인-의욕없는	0.80
도덕적인-비도덕적인	0.72	결단력있는-우유부단한	0.78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0.67	능력있는-무능력한	0.76
단정한-단정치 못한	0.67	지배적인-복종적인	0.66
착한-착하지 않은	0.67	시원시원한-답답한	0.62
보기좋은-보기싫은	0.62	적극적인-소극적인	0.62
부드러운-부드럽지 않은	0.62	강렬한-무난한	0.61
우아한-우아하지 않은	0.61	진보적인-보수적인	0.57
자연스러운-어색한	0.59	개성적인-개성없는	0.56
성숙한-미숙한	0.54		
친밀한-낯설은	0.51		
설명력	26.74%	설명력	17.44%
고유군	8.56	고유군	3.38
요인 3: 현시성		요인 4: 매력성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가벼운-무거운	0.73	멋있는-멋없는	0.69
밝은-어두운	0.71	매력있는-매력없는	0.65
산뜻한-칙칙한	0.61		
설명력	6.88%	설명력	3.92%
고유군	2.20	고유군	1.25

와 같이 4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4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54.98%이었다.

요인 1은 사회성 차원으로 26.74%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특성(점잖은-점잖지 못한, 도덕적인-비도덕적인,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은, 착한-착하지 않은, 보기좋은-보기싫은, 부드러운-부드럽지 않은, 우아한-우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어색한, 성숙한-미숙한, 친밀한-낯설은)과 정숙성과 관련한 특성(정숙한-정숙하지 않은, 단정한-단정하지 않은)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평가성 차원으로 17.44%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평가적 특성(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지배적인-복종적인, 시원시원한-답답한, 적극적인-소극적인, 강렬한-무난한, 진보적인-보수적인, 개성적인-개성없는)과 능력적 특성(의욕적인-의욕없는, 결단력있는-우유부단한, 능력있는-무능력한)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현시성 차원으로 6.88%

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색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관련된 특성(가벼운-무거운, 밝은-어두운, 산뜻한-칙칙한)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매력성 차원으로 3.92%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매력적 특성(멋있는-멋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으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이미지 차원에서 사회성 차원은 사회적 특성과 정숙성과 관련된 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재숙(1991)의 연구에서 호오차원, 강혜원 등(1991)의 연구에서 품위 차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평가성 차원은 평가적 특성과 능력적 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주현 등(1995)의 연구에서 능력-활동성 차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체 인상을 이루는 기본 측면인 평가, 능력 차원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차원으로 도출되어 평가성 차원을 형성한 것이었다. 현시성 차원은 박혜란(1988)의 연구에서 잠재성 차원과 이주현 등(1995)의 연구에서 깔끔함 차원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이혜숙 등(1996)의 색이미지

<표 3> 각 복식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N=400 df=4)

이미지차원		자극물	노랑/노랑	빨강/빨강	녹색/녹색	남색/남색	회색/회색	F Value
사회성	\bar{X}		0.05	-0.26	-0.04	0.03	0.18	2.04 ^{N.S.}
	Duncan							
평가성	\bar{X}		-0.40	0.16	-0.10	0.32	-0.25	7.19 ^{***}
	Duncan		c	ab	bc	a	c	
현시성	\bar{X}		0.44	0.19	-0.03	-0.37	-1.39	55.78 ^{***}
	Duncan		a	ab	b	c	d	
매력성	\bar{X}		0.18	0.53	-0.38	0.14	0.00	8.94 ^{***}
	Duncan		b	a	c	b	b	

저코리색/치마색 ***p<.001 N.S. not significant

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지각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도 도출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색의 감정과 연관된 것으로 색이미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원으로 사료된다. 매력성 차원은 차미승(1992)의 연구에서 매력성 차원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설 1의 복식색과 색조합에 따른 이미지차원은 사회성 차원, 평가성 차원, 현시성 차원, 매력성 차원의 4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 의미미분 척도의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 17개 자극물의 이미지 지각을 위하여 제작한 의미미분 척도에 대하여 피험자들의 응답결과가 신뢰할만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의미미분 척도 전체의 표준화된 신뢰도 계수는 0.83이었고, 사회성 차원은 0.89, 평가성 차원은 0.90, 현시성 차원은 0.70, 매력성 차원은 0.61이었다. 의미미분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과 형용사쌍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1) 각 복식색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각 이미지 차원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5개의 상하동색 자극물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각 복식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는 평가성 차원(F=7.19, p<.001), 현시성 차원

(F=55.78, p<.001), 매력성 차원(F=8.9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가성 차원에서는 남색이 가장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며 능력있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노랑과 회색은 가장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노랑이 가장 밝고 산뜻하며 가벼워 눈에 두드러진 것으로 지각된 반면 녹색>남색>회색의 순으로 나타나 회색이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지 않는 색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녹색은 멋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즉, 노랑 한복착용자는 가장 밝고 산뜻하며 가벼우나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빨강 한복착용자는 가장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녹색 한복착용자는 다른 색의 한복착용자보다 매력없는 사람으로, 남색 한복착용자는 가장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며 능력있는 사람으로, 회색 한복착용자는 가장 어둡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파랑 슈트착용자가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빨강 슈트착용자는 화려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노랑 슈트착용자는 밝은 사람으로, 검정 슈트착용자는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된 이주현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고, 녹색이 H-line의 의복형태에서 비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된 차미승(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표 4> 상하배색 자극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N=738 df=11)

이미지 차원	자극물	노랑/ 빨강	노랑/ 녹색	노랑/ 남색	빨강/ 노랑	빨강/ 녹색	빨강/ 남색	녹색/ 노랑	녹색/ 빨강	녹색/ 남색	남색/ 노랑	남색/ 빨강	남색/ 녹색	F Value
		\bar{X}	Duncan	\bar{X}	Duncan	\bar{X}	Duncan	\bar{X}	Duncan	\bar{X}	Duncan	\bar{X}	Duncan	
사회성	\bar{X}	0.27	0.10	0.15	0.15	-0.12	-0.12	-0.12	0.04	0.10	-0.09	-0.27	-0.04	1.51 ^{N.S.}
	Duncan	a	ab	ab	ab	ab	ab	ab	ab	ab	ab	b	ab	
평가성	\bar{X}	-0.24	-0.27	-0.05	-0.29	0.25	0.27	-0.42	0.21	0.10	0.09	0.25	0.50	5.35 ^{***}
	Duncan	cd	cd	bcd	cd	ab	ab	d	ab	bc	bc	ab	a	
현시성	\bar{X}	0.64	0.40	0.20	0.30	0.19	-0.09	0.52	0.21	-0.29	0.04	-0.21	-0.47	8.72 ^{***}
	Duncan	a	ab	bcd	abc	bcd	de	ab	bcd	ef	cde	ef	f	
매력성	\bar{X}	0.13	-0.22	-0.08	0.25	-0.25	0.03	-0.28	-0.13	-0.44	0.09	0.24	0.04	3.07 ^{***}
	Duncan	ab	bc	abc	a	bc	ab	bc	abc	c	ab	a	ab	

저코리색/치마색 ***p<.001 N.S. not significant

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색이미지는 의복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지각되므로 색의 성격이 복식에 그대로 투영되어 복식착용자의 인상으로 지각되었다고 사료된다.

2) 각 색조합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각 이미지 차원의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12개의 상하배색 자극물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각 색조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는 평가성 차원(F=5.35, p<.001), 현시성 차원(F=8.72, p<.001), 매력성 차원(F=3.0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가성 차원에서는 남색저고리에 녹색치마의 한복착용자가 가장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며 능력있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녹색저고리에 노랑치마의 한복착용자가 가장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가 다른 색조합보다 밝고 산뜻하여 눈에 두드러진 것으로 지각된 반면 남색저고리에 녹색치마의 한복착용자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저고리에 노랑치마, 남색저고리에 빨강치마의 한복착용자가 매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녹색저고리에 남색치마의 한복착용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노랑의 현시적이나 부정적 평가 이미지, 빨강

의 매력적인 이미지, 남색은 어두우나 긍정적 평가 이미지등의 색의 성격이 일부 색조합에서 강하게 지각되어 색조합의 이미지가 좌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각 복식색, 색조합은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 상하동색과 상하배색 간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

가설 3의 검증을 위하여 각 이미지 차원에 대한 요인점수를 종속변인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상하동색과 상하배색 간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는 현시성 차원(T=-5.65, p<.001), 매력성 차원(T=2.3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상하배색된 것이 상하동색보다 눈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 매력성 차원에서는 상하동색이 상하배색보다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표 5> 상하동색과 상하배색간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

(N=1138)

집단 이미지 차원	상하동색	상하배색	t value
사회성	-0.01	0.00	-0.19 ^{N.S.}
평가성	-0.05	0.03	-1.32 ^{N.S.}
현시성	-0.23	0.13	-5.65 ^{***}
매력성	0.10	-0.05	2.36*

*p<.05 ***p<.001

N.S. not significant

이것은 의복의 색이 현시성 차원에서 의복형태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는 차미승(1992)의 연구결과와 매력성 지각이 의복스타일이나 얼굴표정보다 색에 의해 평가된다는 Radeloff(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현시성 차원과 매력성 차원에서 상하배색과 상하동색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 것은 색의 효과에 의한 것이며, 사회성 차원과 평가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한복이라는 의복유형이 색보다 우선적으로 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상하동색과 상하배색 간에는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색과 색조합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형태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한복착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 1138명을 대상으로 피험자간 설계에 의한 준 실험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미지 차원은 사회성 차원, 평가성 차원, 현시성 차원, 매력성 차원이었다. 사회성 차원과 평가성 차원은 의복유형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고, 평가성 차원, 현시성 차원, 매력성 차원은 색 변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각 복식색은 사회성 차원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색의 이미지로 노랑은 현시적이거나 부정적 평가 이미지를, 빨강은 매력적인 이미지를, 녹색은 매력없는 이미지를, 남색은 어두우나 긍정적 평가 이미지를, 회색은 어둡고 부정적 평가 이미지를 주었다.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남색은 색 자체뿐 아니라 얼굴색과 머리색과의 조화가 가장 잘 된 것으로 복식은 사람이 착용하는 것이므로 복식색은 복식에 사용된 색들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개인색-머리색, 얼굴색, 피부색과 눈 등-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를 통해 착용자의 인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각 색조합은 사회성 차원을 제외한 모든 이미

지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색조합에서 두 드러진 이미지를 지닌 것은 남색과 녹색의 조합이 다른 조합에 비해 어두우나 긍정적 평가 이미지를, 노랑과 빨강의 조합이 현시적이며 배색에 의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또한 빨강과 노랑, 남색과 빨강의 조합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녹색과 노랑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 이미지를, 녹색과 남색의 조합이 매력없는 이미지를 주었다.

넷째, 상하동색과 상하배색 간의 이미지 지각 차이는 현시성 차원과 매력성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하배색은 상하동색보다 현시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지각되었고, 상하동색은 상하배색보다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색이 원색이었고, 이 색을 조합한 것이었으므로 상하배색이 상하동색보다 시각적으로 강하게 지각되었을 것이며, 상하동색이 부드럽고 은은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준 상하배색보다 한복의 멋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한복착용자는 색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상하배색의 경우에도 이미지차원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한복이라는 동일한 의복형태라도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를 뿐 아니라 단색과 배색에 따라라도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정보들이 전체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어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는 형태주의 이론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에 관한 분석으로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2판), (주)교문사, 1995
 강혜원·고애란,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2, pp 211-227, 1991
 강혜원·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한복의 의미 (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4, No. 1, pp 31-43, 1990
 금기숙,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19호, pp 29-40, 1992
 김소영, 성인여성의 한복 색채선호도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재숙,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노인의 의생활 양식과 관련지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주)교문사, 1989
- 박혜란, 한국인의 승용차 색채기호도와 Image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오희선·박화순,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4
- 이운영, 복식의장학, (주)교문사, 1993
- 이정옥·권미정·박영실,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 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33, No. 2, pp 167-180, 1995
- 이주현·조광호,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9, No. 5, pp 747-764, 1995
- 이주현·강혜원,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 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9, No. 6, pp 984-994, 1995
- 이항미,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립, 색 및 백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 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혜숙·김재숙, 의복디자인 요소의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 -색·무늬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복식문화연구, Vol. 4, No. 3, pp 349-360, 1996
- 입승빈, 환경심리형태론, 서울, 보성문화사, p5, 1986
- 진윤희, 전통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전통건축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차미승,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최세완·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1980년대 이후 한국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No. 1, pp 103-117, 1993
- 최영미·조효순, 한복의 구매행동 및 구매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복식 13호, pp 135-150, 1989
- 홍병숙,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평가, 한국의류학회지, Vol. 12, No. 3, pp 373-382, 1988
- Abramov, I., An Analysis of Personal Color Analysis, In M. Solomon, *The Psychology of Fashion*, Boston, MA : Heath, pp 211-223, 1985
- Goldstein, E.B., *Sensation and Perception* thir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Inc., 1989
- Hesselgren S., 조형론, 박규현, 김정재역, 서울, 기분당, 1987
- Kobayashi, S.,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Vol. 6, No. 2, pp 93-106, 1981
- Matlin, M.W., Foley, H.J., *Sensation and Perception*(third ed.), Allyn & Bacon, Simon & Schuster, Inc., pp 123-146, 1992
- Palca, *The Language of Clothes*, Butler & Tanner, 1992
- Radeloff, D.J., Role of Color in Perception of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1, pp 151-160, 1990